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Experiencing North Korea-China Borderland and Routes of Mobility:
'Border Crossing' of North Korean border-crossers
and the Expanding of Transnational Ethnic Spaces

김성경**

북한의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동기와 경험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발생한 경제이주의 틀에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경제이주의 시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동기와 경험을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이주를 추동했던 또 다른 요인으로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초국적 민족 공간(transnational Ethnic Space)과 이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초국적 경험(transnational Experience)을 주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들의 월경이 '경계 넘기(Border Crossing)'의 일환이었는지 혹은 민족적 연결 고리들을 이어가는 '경계 만들기(Border Making)'이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문화적·언어적 커뮤니티(cultural and linguistic community)가 바로 북·중 경계지역에 자리 잡혀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경계 넘기'는 타국으로의 '이주(migration)'이기 전에 일상생활 깊게 작동해온 커뮤니티 내(內)의 '이동(mobility)'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본고는 이들이 남한으로 도착하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중국내 혹은 제 3국에서의 이동의 경로는 동일 민족이라는 문화적·언어적 커뮤니티의 '경계'를 확장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장하고자 한다. 덧붙여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은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계(들)를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또 다른 '경계 넘기' 혹은 초국적 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05).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bible0729@googlemail.com)

족 공간의 경계 확장해가는 시도를 주목하고자 한다.

주요어: 경계지역, 문화적·언어적 커뮤니티, 초국적 민족 공간, ‘경계 넘기’, ‘경계 만들기’

1. 들어가며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은 남한과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치적 맥락 안에서 끊임없이 정치화 되곤 하였다. 중국의 북한주민 강제복송 정책과 북한정부의 높은 수위의 처벌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형성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대결구도 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의 문제는 보편적 가치로 작동하기 보다는 인권이라는 기제를 통해 이해당사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실리를 얻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중국과 북한은 북·중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의 이동이 단순 경제적 목적으로 한 불법월경으로 이해하여 당사국간의 해결을 주장 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이들의 북한내외의 인권적 상황을 들어 정치적 박해자로 규정함으로써 북핵 등 주요 사안에서 중국

1) 냉전 이후 서구의 국제관계 정책에서 발견되는 경향은 인권의 이름으로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몇몇 학자들은 ‘인권주의적 제국주의(Humanitarian Imperialism)’라고 명명하면서 서구의 제3세계 개입을 인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린 제국주의라고 주장한다. 특히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조치의 첫 시작은 1999년에 미국의 코소보 공격인데, 이후 ‘인권의 이데올로기’ 아래 치러진 전쟁은 무수하게 많다. 최근에 들어서는 군사적 개입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압력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예는 Chomsky, N., “Humanitarian Imperialism: The New Doctrine of Imperial Right,” *Monthly Review*(2008)(www.chomsky.info/articles/200809--.htm)와 Bricmont, Jean, *Humanitarian Imperialism: Using Human Rights to Sell War*(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6)를 참고하라.

과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이동의 성격과 추동 요인은 각 당사국의 정치적 논리 안에서 왜곡되기 쉽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주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주민의 이주가 동북아의 정치 지형 내에서 혹은 국내 정치용으로 정치화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이주의 성격과 원인을 정치적인 것 혹은 경제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즉 북한주민의 이주를 추동했던 또 다른 요인으로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과 이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초국적 경험(transnational Experience)을 주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들의 월경이 ‘경계 넘기(Border Crossing)’의 일환이었던지 혹은 민족적 연결 고리들을 이어가는 ‘경계 만들기(Border Making)’는 아니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거의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정치적이었던 반면, 대량 탈북사태 이후에는 경제적 이유에 그 근원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다(윤인진, 2009; 2001; 정주신, 2011; Lee, 2004; 김수암, 2006; Aldrich, 2011). 냉전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던 1960~1980년대까지는 주로 북한 정권에 탄압을 피해 이주한 군인이나 정부 관료가 대부분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량탈북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극복을 위한 경제이주라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요인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에도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감행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 이주자 중에서도 몇 번의 강제 복송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난민으로 성격이 변화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이주의 성격과 원인을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첫째,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시작된 북한주민의 이동은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100만까지로 추정²⁾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한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기 보다는 중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북한으로 자발

적으로 돌아가기는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마이어서, 2011: 14). 만약 이들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이주를 감행했다면 자발적으로 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고, 단순히 경제적 이주로 일반화하기에는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 있는 북한주민의 수가 너무 많다. 둘째, 대량 탈북사태 이후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를 감행하기보다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이다.³⁾ 2005년에 미국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약 10만에서 3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이 단순히 남한으로의 이주 과정이 험난하여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단기 체류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그 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셋째, 북한주민이 북한 정권의 폭압이나 극한의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를 감행한 것이라면 북한 전역에 걸쳐 이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주민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점은 북한주민 이주의 또 다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즉, 중국과 국경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⁴⁾ 중에서도 함경북도 출신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주

2) 북한월경자의 정확한 수는 산출하기 어렵다. 이는 북한주민의 이주가 정치화되고 있는 이유에서이기도 하고 이들의 중국내의 불법적 신분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2011년까지 약 23,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입국하였다. 최근에는 제3국으로의 이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2008년 2월까지 약 170여 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획득했고, 2009년까지 영국은 약 1000여 명, 노르웨이 255명, 그리고 캐나다 214명으로 그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오원환, 2011: 239~241). 하지만 대부분의 제3국 이주자들은 남한을 거쳐 ‘난민’ 신청절차를 통해 이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수는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북·중 국경지역은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 총 1,334km에 이른다. 북한과 중국은 1962년에 『국경 문제에 관한 회담 기요』를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중간 지점을 국경으로 정하고, 양 강도의 소유권은 삼동(三同)의 원칙(공동소유, 공동관리, 공동이용)을 채택하였다(송봉선, 2011: 271). 이 때문에 북·중 경계지역 내 현재 운행 중인 총 9개의 연결통로(신의주-단둥 철교, 만포-지안 철교, 중강-린장 도로교, 삼봉-카이산툰 철교, 남양-투먼 철교, 회령-싼허 도로교, 경원-사튀즈 도로교, 원정리-취엔허 도로교, 온성-투먼 도로교)는 철저히 삼동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이우희, 2011:117).

를 감행한 이유는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경계지역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설명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중 많게는 70%까지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에 대한 문화적 규명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북한여성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면서 여성의 수가 급증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면 북·중 경계지역의 문화·지리적 측면에서 여성의 이주를 유인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생활경험세계가 확장되면서 이들의 이주가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고는 북한 주민의 이주에는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민족 문화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문화적·언어적 커뮤니티(cultural and linguistic community)가 바로 북·중 경계지역에 자리 잡혀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경계 넘기’는 타국으로의 ‘이주(migration)’이기 전에 일상생활 깊게 작동해온 커뮤니티 내(內)의 ‘이동(mobility)’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맥락에서 이들이 남한으로 도착하기 까지 경험하게 되는 중국내 혹은 제3국에서의 이동의 경로는 동일 민족이라는 문화적·언어적 커뮤니티의 ‘경계’를 확장하여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2. ‘경계(들)’, ‘국경’, ‘문화적·언어적 커뮤니티’: 문화적 자원으로의 북·중 경계지역

경계(border)에 대한 논의는 다층적이다.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소통을 제약하는 일상의 ‘경계’에서부터 정치·지리학적 경계로서의 ‘국경’, 문화적 혹은 계급적 차이를 들어내는 아비투스로서의 재현적 ‘경계’, 사회구성원들의 무의식과 의식을 넘나들며 작동하는 상상적 ‘경계’까지 경험되는 경계(들)는 셀 수 없이 많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혹은 경계를 경험하는 행위주체의 위치에 따라 확장/축소되거나 혹

은 절합/분열되기까지 한다. 때문에 경험되는 경계의 작동을 단일한 틀로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경계가 명확하게 작동된다는 것은 너무 단순화된 가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작동한다고 믿어져 온 근대 사회의 경계는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경계인 ‘국경’인데, 최근에 들어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정치·지리학적 구분으로의 경계의 개념에 대한 의문이 여러 학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뉴먼과 파시는 경계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경은 영토가 제도화되거나 생산되는 것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Newman and Passia, 1998). 한편 발리바르는 ‘국경의 흔들림의 시대’의 도래를 주장하면서 국경은 단순히 제도화된 특정 지역이나 지도상에서 선(lines)인 ‘경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Balibar, 1998: 217; also see Vaughan-Williams, 2009). 즉 지리학적 선으로 존재하는 ‘국경’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주권의 지역적 한계를 명시하는 것으로 작동해 왔지만 실제 국가 간의 구분으로의 ‘국경’은 지리적 국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상상, 재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작동하기도 하고 혹은 전혀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Akaha and Vassilieva, 2009; Wast-Walter, 2011). 이는 ‘국경’은 지리적으로 그려진 실제 ‘국경’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국가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분이 요구되는 다양한 공간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공항, 항만, 출입국관리소, 대사관, 외국인 밀집지역, 심지어는 음식점, 관광 안내소, 직업 훈련소 등의 일상의 공간까지도 국경이 작동하는 ‘상상적 경계(imaginary border)’로 작동할 수 있다.

‘국경’이라는 경계로 맞닿아 있는 경계지역은 이와 같은 ‘경계’ 특히 ‘국경’의 다층성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영토적 영역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국경은 다양한 기제들을 통해 때로는 강화 혹은 약화되어서 작동하기도 하고, 경계지역의 거주민들의 역사성과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체화되기도 하

기 때문이다. 가령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경계’와 ‘국경’은 일상생활의 장벽이기보다는 확장된 소통과 교류의 채널로 작동하는 사례가 많다(Henrikson, 2011). 북·중 경계지역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커뮤니티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근대국가 이전부터 오랫동안 구축된 역사성과 민족 공동체에 바탕을 둔다. 19세기 중엽부터 일제강점기시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⁵⁾들이 뿌리를 내린 중국 동북 3성과 북한이 맞닿아 있는 북·중 경계지역은 북한 사람들에게 국경으로 제한된 지역이기보다는 오랜 시간동안의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역사적·문화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압록강 이북의 조선족의 대부분은 조선 북부 평안도 사람들이었고, 두만강 이북으로 이주해온 조선인들은 함경도 출신이었다는 점(리홍국 외, 2010: 14)을 감안할 때 중국 동북 3성과 북한의 국경지대는 근대의 ‘국경’의 선이 그어지기 전부터 오랫동안 혈연적·문화적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었다. 특히 함경북도와 두만강을 두고 맞닿아 있는 중국 쪽 지역은 연변조선족자치주⁶⁾로 조선족의 문화적·언어적 특성을 지금까지도 지켜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근대의 국경이 생겨나고 난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경계지역과의 교류를 계속해왔고, 이로 인해 국가라는 체제와는 다른 수준의 감정적·일상적 커뮤니티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강 넘어 중국 조선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었다는 역사적 기억은 이들을 좀 더 가깝게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하였다(Lee, 200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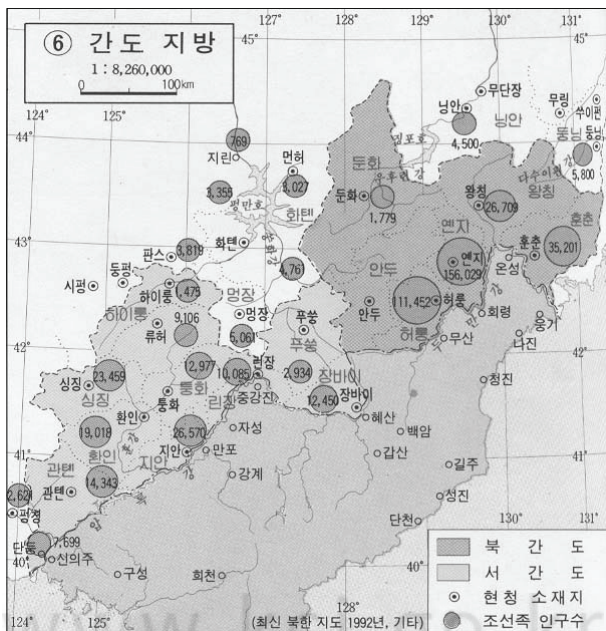
5) 중국 내의 조선족들은 19세기 중엽부터 이주해온 조선인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연재해를 피해 온 ‘리제민과 류량민’이거나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제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생계토대를 상실한 파산된 농민들’과 ‘반일지사’이고, 항일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제국주의가 실시한 이민정책에 의해 강제로 이주한 ‘둔간민(당시에는 개척민이라고 불렀음)’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으로 이주하여 조선족자치주를 구성하였다(리홍국·김호남·장희망, 2010: 4~8).

6) 연변지역은 1952년 9월 3일에 중국정부로부터 조선족자치주로 인정받게 된다(Goma, 2006: 870).

<그림 1> 북한 행정지도



<그림 2> 경계지역 조선족의 인구 수(1992)



반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자강도와 양강도는 국경 반대편에 조선족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같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고,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집중되면서 타 지역보다는 국경이 강화되어 작동해왔다는 점과 양강도의 경우에는 백두산의 험한 산새가 중국 조선족과의 빈번한 접촉을 가로막았다는 점 때문에 함경북도와 연변자치주와 같은 일대에서 작동하는 문화적·언어적 커뮤니티를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구성하지 못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압록강보다는 강폭이 좁고 물살이 느린 두만강 유역의 경계지역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중앙정부나 내륙과는 구별되는 경계지역으로의 구별적인 지역문화를 갖고 있다.⁷⁾이 때문에 함경북도 사람들이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에게 정치적인 의미(political meaning)로의 ‘국경’과 감정적 풍경(emotional landscapes)으로의 ‘경계’는 사뭇 다른 것으로 감정적·일상적 커뮤니티로의 경계지역은 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여 삶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레이처트(Reichert)는 경계는 지도에 그려지는 구분선인 국경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다양한 접촉지대(contact zone)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실제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ichert, 1992; Harvey, 2000; Smith, 2011). 그는 ‘동일언어지대(linguistic zon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정치적인 국경과는 다른 층위에서 언어적 경계가 작동하고, 이 언어적 경계는 같은 언어를 쓰는 커뮤니티간의 접촉 수준과 정도에 따라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면 동일언어지대는 언어라는 수단을 매개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문화와 생활방식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⁸⁾

7) 중국과 북한 경계지역의 커뮤니티는 장률 감독의 영화 <두만강>에서 그 면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두만강과 경계지역은 국경으로 구분된 지역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로 그려진다.

8) 조선족과 함경북도 사람들 사이에는 언어, 생활방식, 문화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족과 함경북도 사람들은 비슷한 억양과 어휘를 쓰고 있고, 음식, 생활, 놀이 문화 등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탈

북·중 경계지역은 ‘국경’이라는 정치 지리학적 경계와는 다른 층위에서 조선족과 북한주민 사이의 혈연적 관계와 동일언어를 활용하여 빈번한 접촉을 지속해왔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성해왔다. 북·중 경계지역에서 일상의 층위에서 작동해온 동일 언어·문화 커뮤니티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 만 아니라, 중국과 남한의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중국내 연안도시나 대도시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권태환·박광성, 2004: 65). 다시 말해 경계지역 내의 동일 언어·문화 커뮤니티는 남한과의 교류와 중국의 도시화라는 외제적 상황에 발맞춰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히 경계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일 언어·문화 커뮤니티의 확장/분화/강화/약화 등의 역동성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또한 확인된다. 즉 본 논문은 국경이라는 정치지리학적 경계의 작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상의 경계의 선을 따라 북한이탈주민 이동의 동학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21명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대상자 중 1명만이 평양 출신이었고, 나머지 20명은 함경북도 출신이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가 함경북도 출신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70%에 달하는 함경북도 출신들의 이주의 동인과 북·중 경계지역의 공간의 의미를 찾기 위함이다. 중국에 십 년 넘게 정주하고 있는 북한여성의 심층인터뷰 자료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을 단순히 남한이나 제3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기착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층인터뷰는 1회에 1~2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사례 A, B, G, I, J, K의 경우는 2~3회 정도 추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이주 후 생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 J, G, K, L씨와 집중토론과 심층인터뷰 또한 진행하였다.

북자들은 언어적·문화적 괴리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사례 K씨 인터뷰).

< 표 1 > 면접대상자 기본정보(인터뷰 기간: 2011.4~2012.3)

	성별	나이	입국년도	출신지역	중국 체류기간	중국에서 직업
A	남	28	2007	함경북도	11년	웨이터, 구두닦이, 구걸, 밀수, 농촌 노동
B	남	30	2004	함경북도	5년	밀수, 장사, 구걸, 노동
C	여	47	2009	함경북도	7년	병간호, 장사
D	남	30	2002	함경북도	1년	성경공부
E	남	47	2004	함경북도	10년	밀수, 장사, 노동
F	여	24	2009	함경북도	5년	학생
G	여	28	2012	평양	5년	병간호, 밀수
H	남	30	2004	함경북도	9년	구걸, 구두닦이, 노동
I	남	42	2011	함경북도	6개월	밀수(마약), 장사
J	여	38	2011	함경북도	8개월	
K	여	55	중국	함경북도	99년 이래로	식당·농촌에서 노동
L	여	30	2011	함경북도	7년	식당·농촌에서 노동
M	여	40	2011	함경북도	7년	식당·농촌에서 노동
N	여	41	2011	함경북도	10년	식당 노동
O	여	40	2011	함경북도	3년	식당 노동
P	여	41	2011	함경북도	3년	장사, 노동
Q	남	57	2011	함경북도	5년	장사, 밀수
R	남	30	2011	함경북도		브로커 통해 바로 입국
S	여	24	2011	함경북도	2년	식당 노동
T	남	28	2011	함경북도		브로커 통해 바로 입국
U	여	44	2011	함경북도	9년	식당 노동

3. 탈북자의 ‘이동’: 일상에서 경험되는 ‘경계’

1994년 김일성의 죽음과 1995년 대홍수로 시작된 최악의 경제난은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극단의 상황에 내몰게 하였다. 1990년을 기점으로 곡물생산은 1997년에 약 25% 이상 감소하였고, 배급은 1993년부터 계층⁹⁾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 수급까지 문제가 생기자

9)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남한에 동조한 세력이나 지주 계층 등 ‘불순분자’를 색출

중앙정부가 위치해 있는 평양 지역을 제외하고 수송 체계가 미비한 북부 산간 지역과 동부 지역에서부터 배급이 끊겼다(김병로·김성철, 1998: 80). 1994년부터 시작된 5년간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각 지역별로 먹는 문제를 자력생산을 하여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은 각자 살아가야 할 방도를 찾아야만 했다. 서부의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악지대인 북한의 지리적 특성상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은 가장 척박한 지역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은 지역은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였다. 각 지역 단위로 생산된 곡식이 중앙정부로 집결되어 배급되는 시스템에서 지리적 위치가 가장 멀기도 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물류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중공업 시설과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 내 곡물 생산량이 적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중국과 경계지역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 중 특히 월경자가 많았던 곳은 함경북도였다. 다음 <표 2>에서 보듯이,¹⁰⁾ 약 68%의 북한이탈주민은 함경북도 출신이고, 그 뒤를 함경남도(약 10%), 양강도(5%), 평안남도(4%), 평안북도(3%), 평양(2%) 자강도(1%)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함경남도의 경우 북한 내에서도 철도 및 도로 시설이 미비하여 식량 배급난이 가장 심각했고, 이 때문에 국경지역이 아

하여 산간벽지로 강제이주 시켰다. 이후 1966년 인구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핵심’계층과 보통주민으로 이루어진 ‘동요’계층, 그리고 잠재적 위험인물들로 구성된 ‘적대’계층으로 구분하였다(통일교육원, 2012: 229).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세대교체와 1세대들의 사망으로 이 계층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체 인구의 50%에 이르렀던 적대계층 중 본인의 노력으로 북한 정권에 기여한 자들이 동요계층으로 포섭되어 적대계층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김병철·김성철, 1998: 32~33). 경제난 이후에 변화된 계층에 대한 논의는 이우영 위음(2008)의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중 제2장 『북한 도시 사적 부분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를 참고하라.

- 10) 물론 위의 표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는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을 짐작하기에도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약 10~3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내 북한이탈주민도 과반이 넘는 수는 함경북도 출신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표 2> 재북 출신지역별 분포 (2008년 12월 현재)

구분	함북	함남	평양	남포	평남	평북	자강	양강	황남	황북	강원	기타	계
누계 (명)	10,234	1,520	371	89	553	477	100	766	291	223	313	120	15,057
비율 (%)	68	10	2	1	4	3	1	5	2	1	1	1	100

자료: 통일부 정착지원과(2009)

니었음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이탈주민이 발생하였다. 출신 성분이 가장 높은 최상위 계층만 모여 산다는 평양보다도 적은 수가 월경을 한 자강도의 경우 군사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배급난이 늦게 시작되기도 하였고, 험한 산세가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국경지역인 양강도의 경우에는 중국 쪽과 공식적인 무역 채널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난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이 때문에 비공식적 월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있다(Smith, 2009: 175~177). 하지만 양강도의 해산을 기점으로 한 지역은 공식적 무역도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좁은 강폭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활발하게 밀수를 하였던 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제난이 함경남·북도보다 오히려 심했다는 자료도 있다.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망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자강도의 사망률은 32.9%로 북한 내에서 가장 높고, 양강도의 경우에도 28.1%로 함경북도의 27.5%보다 높은 수준이다(좋은 벗들, 1998). 특히 자강도의 경우에는 김정일이 직접 자강도 주민을 치하할 정도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가장 열성적으로 김정일 체제에 협조하였고 이 때문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정일, 2000: 393~411).¹¹⁾

11) 김정일은 자강도가 고난의 행군을 가장 혁명적으로 완수하였다고 격려하였다. 김정일 선집의 자료에 의하면 김정일은 1998년 자강도를 방문하여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고 말하였다(2000: 393~411). 그 만큼 자강도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체제에 위협이 되는 월경을 하지 않았고, 자력갱생에 매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과 국경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인 자강도와 양강도가 함경북도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함경북도 출신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대부분의 함경북도 사람들은 북한 내 다른 지역 혹은 중앙당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서 ‘자력갱생’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 건너 조선족에게 기대었는가하는 점이다. 국경으로 나누어진 중국과 북한의 ‘경계(border)’가 북한 지역 내의 경계(border)보다 함경북도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동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의 계층적 특성과 지역적 분포는 북한 지역 내 경계의 구성을 설명해준다. 평양이 표방하는 ‘혁명의 수도’, ‘주석의 도시’에 걸맞게 대부분의 평양주민들은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다(김문조·조대엽, 1992: 35). 김정일은 지난 1980~1984년 사이에 3~4차례 평양 내 불순분자 및 신체장애자를 타 지역으로 이주시켰고, 최상위 성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평양에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타 지역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는 평양이라는 공간이 북한정권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기타 지역들과의 감정적·문화적 연결고리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게다가 공간의 분리가 곧 계층의 분리로 이어지는 구조와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지역적 이동을 제한하였던 북한정권의 정책은 북한 내의 지역적 경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K씨의 경우 무산지역에 살다가 아버지의 성분이 좋은 것으로 들어나면서 평양으로 이주하게 된 사례였다. 대학 졸업 후 교원 생활을 하면서 평양에 살던 K는 우연하게 만나게 된 제대 군인 출신 건설노동자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된다. 교량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남편을 따라 고향이었던 무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후 식량난이 본격화되는데, 처음에는 평양의 오빠들의 도

2000년에 제작된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영화에서는 자강도 출신 주인공이 고난의 행군을 깨끗하게 견뎌나갔음을 선전하고 있다.

음과 여맹위원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러저럭 버텼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7년 남편이 병을 앓다 죽자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거기에 체육 교육을 받으러 타지에 나가있던 아들이 영양실조 상태로 집에 돌아오자 K는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오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

‘내가 난 중국에 다녀와야겠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랬더니 반장이 무슨 소리인가 이려는 겁니다. 내가 빨갱이 빨갱이 나 같은 빨갱이가 없었던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반장한테 우리 혁이가 다 죽어가게 생겼다고 애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장 동지한테 의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반장이 감자 배급 댔으니, 그때 감자를 가져가라. 반장이 중국에 가는 날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날 밤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때 오빠들한테 손을 내밀자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전보라도 치고 편지라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지도 몰랐는데, 오직 중국만 생각했던 말입니다. 다시 결심 내린 것이 가자. 중국에 가자(K씨 인터뷰).

건설노동자와 결혼하여 더 이상 좋은 성분이 아닌 K는 혈연관계이지만 평양에 살고 있는 최상위 계층의 오빠에게 상당한 이질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과 무산의 지리적 거리는 K와 오빠들의 계층적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만큼의 사회적·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내기 충분하였다. 이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영양실조가 걸린 극한의 상황에서 평양에 있는 오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중국에 가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그 만큼 중국에 가는 것이 평양으로 가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면서도 친근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월경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경험이였을까? 아무리 평양과 기타 지역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국내 지지방이 아닌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것을 감행하였다면 이들에게 있

어 북·중 경계의 의미는 통상적인 국경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탈주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함경북도 주민에게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함경북도인들의 경우 경제난과 대중교통의 미비, 권력 서열에 따른 거주 지역 서열화 등으로 북한 내의 타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접촉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반면에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와는 편리한 접근성, 민족정체성, 역사성 그리고 동일 언어사용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일종의 동일문화·언어지대(Cultural and linguistic zone)를 형성하고 있었다(Reichert, 1992; Dominian, 1915). 이 지대는 단순히 물리적 혹은 지리적으로 두 지역이 맞닿아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성되어온 상호 연계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이면서도 유사한 언어와 문화지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렐프, 2005: 85~87). 즉 북·중 경계지역은 함경북도 주민에게는 일상의 공간으로 접촉과 교류가 항상 횡단하는 지역으로 경험되고 있었고, 이에 이들은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동일문화·언어지대 내의 이동을 감행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¹²⁾ 사센을 인용하자면 아무리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감행하더라도 지역적·문화적·사회적 지리여건이 주요한 이주 추동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Sassen, 1990).

많은 수의 함경북도 주민은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친척이 있고, 경제 위기 전에는 중국으로 친척을 방문하거나, 혹은 조선족 친척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앞에서 소개한 K의 경우에도 무산에서 태어나 상당히 많은 친척들이 연길에 살고 있었고, 1990년대 초에는 친척방문허가증을 받아 중국에 방문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12) “탈북자 사이에서는 함경도 사람들 중에서 중국에 한번 안 넘어갔다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당)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난의 시기에는 함경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월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홍진표 외, 2004: 24).

[...] 국기훈장 3급을 받고, 친척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남평-화룡-연길까지. 연길에 친척들이 다 있어서요(K씨 인터뷰).

이와 같은 경험은 K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영양실조가 걸린 급박한 상황에서 평양에 있는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닌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 연길에 살고 있는 조선족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C씨인데, 그녀는 조선족 어머니와 북한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조선족 출신인 까닭에 어렸을 때는 매일 같이 중국 쪽에서 건너온 친척들의 뒤치다꺼리를 했다고 한다.

1986년에서 1992년까지 친척들이 하루도 안 빼고 장사하러 왔었어요. 엄마가 김철 제철공장 여맹위원장도 했고 연맹 공장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때 친척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1998년도부터 각자 자체로 살아가라는 교시가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중국이랑 무역하고, 교역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친척들이 올 때마다 제가 다 도와주고 했거든요 (C씨 인터뷰).

친척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C는 경제난이 닥치자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넘어가 친척들을 통해 무역을 하게 된다.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친척들은 C를 반겼고, 이 때문에 C는 결국 중국에 장기체류하게 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보다 가난했던 조선족 친척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생필품을 팔고, 광물이나 건강식품 등을 사가지고 넘어가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북·중 경제지역은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기보다는 끊임없는 초국적 경험들로 재구성된 동일문화-언어지대로 자리 매김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 A씨는 1996년 어린 나이로 처음 월경을 감행하는데, 그 이유는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의 갈등이었다.

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매일 손찌검하고 그래서. 예잇 그냥 나왔어요. [...] 엄마가 잘 때 새벽 2시에 바로 강 넘었지. 그 전에는 중국 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많이 놀았지요. 두만강이니까 수영하러 나가면 조선족 애들이랑 수영도 같이 하고 얘기도 하고 물건도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1996년도 3월. 북한은 4월 중순 돼야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얼음타고 넘어갔어요. 그때가 12살이예요. [...] 처음에는 강 넘자마자 새벽이니까 전부다 자잖아요. 불 켜있는 집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면 (그쪽에서) 중국말로 해요. 그럼 (내가) 조선말로 해요. 그럼 조선족이예요(A씨 인터뷰).

이렇듯 월경하는 것이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험이기보다는 익숙했던 경로를 통한 충동적인 이동이기도 하다. 그 만큼 월경을 한다는 것이 국가를 넘어가는 이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보다는 일상의 공간 내에서의 반복된 이동의 성격을 띠었다. A씨의 경우 우연하게 신세지게 된 조선족의 도움을 받다가 미안한 마음에 북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주기 시작한 것이 계속되는 도강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그 집에서 며칠 있다가 북한에 왔다 갔다 했어요. [...] 북한에서 뭐 필요한 것 있냐고 물어보지요[...] 그 사람(처음에 도움을 준 조선족)이 밑천대 줄 테니까 [장사를]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끼장사, 개장사, 기름개구리[하마 개구리], 송이 장사도 해봤다가 그러다가 10년 안 되지만 하여간 왔다가 갔다가 안 잡혔어요(A씨 인터뷰).

고난의 행군시기에 각 단위의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경제활동을 할 것을 독려했던 북한정권은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월경을 지원 혹은 묵과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서류는 ‘친인척 방문허가증’이라는 서류 한 장이었고, 이 서류는 중앙정부가 아닌 당의 지역사무소에서 처리되었다. 이 시기의 중국과 북한의 국경경비대들

은 대부분이 동일언어지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local)’ 사람들로 국경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불법적인 월경은 마치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다시 사례 A의 경험을 들어보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혔지요 북한에 넘어가는데 걸렸어요. 북한 군인한테 걸렸어요. 무산 근처에서 잡혔어요.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봐달라고 했더니 담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갑 주고 두 보루 있다고 하니까 다 주면 그냥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A씨 인터뷰).

또 다른 사례 B씨는 자신이 국경경비대와 친하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넘어 다녀도 뭐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좀 쥐어주면 다시 풀려나고 그랬으니까요(B씨 인터뷰).

국경을 단속하는 군인은 오랫동안 강을 건너다니며 장사를 했던 지역 사람들과 이미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었고, 설령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뇌물로 풀려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중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국경은 국가를 구분하고 제한하는 ‘경계’로 명확하게 작동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약화 혹은 파열되어, 북한주민이 중국 쪽 경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강화되는 국경: 탈북자의 ‘경계 넘기’

이렇듯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북·중 국경이 강화되어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동북 3성 조선족과의 공식/비공식적 교류는 계속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북한정부가 사실상 불법월경자를 묵과하였기도 했고, 식량난으로 인해 사회 시스템이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일정기간 구호소에서 수용한 이후에 석방하는 등 처벌의 수위도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묵과해온 월경자들이 북에 돌아오는 것이 아닌 중국에 머물면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제3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합법적 월경자들의 경우도 경제적 이득을 갖고 북에 돌아오기 보다는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북한과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국경’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친척이나 친족이 있다는 증명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친인척 방문허가증’은 2000년대 초부터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친인척 방문허가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지고, 뇌물이나 사회적 연결망의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¹³⁾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남한의 각종 ‘단체·조직·인사들의 기획입국’ 시도로 탈북자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되자(송봉선, 2011: 291~292),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국경을 강화하지 않았던 중국과 북한이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의 방법으로 두 국가의 경계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강화된 ‘국경’과 경계지역은 두 국가의 정치적 주권이 작동하는 주요한 지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강화된 ‘국경’은 지금까지 경계지역을 오가며 무역이나 장사를 해왔던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국가를 등지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중국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본국에서 타국으로의 ‘이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기간 ‘이동’

13) 인터뷰 사례 K씨의 경우 최초의 월경은 북한정부의 ‘친인척 방문허가증’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에 최초로 월경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방문허가증을 신청하고 1~2주 정도 기다리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중앙당에서 방문허가증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지자 불법월경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었다. 길게는 수개월에서 짧게는 일주일 남짓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사서 북한으로 들어와 장마당에서 팔아 근근이 가구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화된 ‘국경’은 이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짓고 강력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Choi, 2011).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되는 경우나 북한 측 국경경비대에 잡힌 북한 주민은 구호소, 노동단련대, 관리소 등에서 강제 노동, 교화, 고문 등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월경자의 가족들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리정순, 2009: 62~76). 이로 인해 국경을 오가며 이동하던 북한 주민들은 북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감시를 피해 중국으로 이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례 H의 경우에는 할머니가 여관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을 드나들며 밀수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고, 1996년에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 나선 것이 처음 시작이었다고 한다. 후에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면서 밀수도 하고, 중국에서 ‘놀기도 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잡혔는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경미한 처벌을 받은 후 풀려났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번 잡히자 북한 당국에서 그를 가장 힘들다는 노동단련대에 수감하였다.

단련대는 정치수용소보다 더 힘든 일을 하거든요. 겨울에 장갑하나 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3명에서 이따 만한 통나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손이 다 얼고. 그때 정말 뼈밖에 안남아 있었어요. 그러가지고 거기서 병치료로 나왔어요. 너무 말라서 죽을까봐 나왔어요. 집에 가서 잤는데,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어요(H씨 인터뷰).¹⁴⁾

14) 21개의 심층 인터뷰 사례 중 A, B, D, E, I, K, P, R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국경 경비대에 잡혀 구류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처벌의 악몽 같은 기억이 이들이 북한을 떠나게 하는데 상당히 작용하고 있음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탈북한 경우 처음부터 남한행을 염두에 둔 경우도 있고, 남한에 이미 정착한 가족이 브로커 비용을 내고 이들의 탈북을 돕는 경우도 증가하여 이들의 이주의 동기에 강화된 국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

H를 더욱더 북한에서 내몬 것은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 앞에서 해야 했던 생활총화였다.

진짜 쪽 다 팔렸어요. 학교 다니던 동창애들도 있고,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총화. 부령군에 있는 강당에 끌려 나가서 수갑까지 차고 수백 명이 보는데서 당했지요(H씨 인터뷰).

단체 생활이 가장 중요한 북한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후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 H는 북한을 완전히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된다.

또 다른 사례는 앞서 소개한 C씨인데 그녀는 중국 쪽의 “친척들과 힘을 합쳐서 돈을 벌 생각만 했지 중국에서 살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북에 두고 온 하나 밖에 없는 딸 때문에 다시 북에 돌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였는데 다시 넘어가면 처벌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딸아이를 중국으로 데려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때(중국에 온지 6개월 후, 2002년 10월)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 북경(북한)대사관에 찾아 갔어요. [...] 아파서 못 들어갔는데, 이제 조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심양으로 내려가라. 심양에 황영사라고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바로 심양으로 갔더니. 기다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3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야. [...] 다시 (심양에) 찾아갔더니 지금가면 처벌도 심하게 받고 그리고 왜 굳이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C씨 인터뷰).

C씨의 경우 갑자기 강화된 국경이 C씨의 귀환을 막게 되었고, 북한 대

사관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방도를 찾지 못한 경우이다.

게다가 강화된 국경은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이들을 구별해내고 제 외시킨다. 공안이 언제 잡아갈지 모른다는 공포심과 북한에서 탈북자를 잡으러 군인이 조를 짜서 돌아다닌다는 소문까지 이들은 매 순간 불법월경자로서 국경을 경험하게 된다. B씨의 경우 18살 때부터 밀수를 하면서 경계지역을 ‘휘젓고’ 다니다가, 21살이 되던 2003년에 다시 북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두만강을 넘어 화룡과 용정까지 도착을 했는데 사스 발병으로 중국 전역에 경찰단속이 심해지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한다.

어떻게 뭐야 아는 집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공안들이 하도 검사를 해서 들어서 산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먹고 굶으니까 죽겠더라고요. [...]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타향에 와가지고 굶어 죽느니 뭐야 저기 차라리 잡히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B씨 인터뷰).

또 다른 사례 F씨는 어머니를 따라 후에 중국으로 이주하였는데, 학교에서 경험하는 국경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길림시 밖에 있는 시골 한족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길림시 안에 있는 조선족 학교로 옮긴 F씨는 우연한 기회에 학급 친구들이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북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공안에게 신고할까 보다”, “보상금이 500원이라더라”, “북에서 와서 그런지 어떻다” 등의 놀림을 받게 된다.

북한에서 온 애라고 북한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진 거지요. 인격적인 모욕도 주었고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북한이라는 말만 나오면 신경이 쓰이게 된 거예요(F씨 인터뷰).

유복한 환경 때문에 중국국민증까지도 있었던 F씨이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놀림과 흑시라도 밟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학교를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강화된 ‘국경’은 경계지역의 동일 문화·언어지대로서의 공동체적 문화까지 변화시켰고, 이는 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의 대립적 관계까지 양산하게 된다(윤여상, 2008). 특히 북한 주민의 월경이 이주 산업화되면서 많은 수의 조선족이 탈북 브로커가 되거나 인신매매산업에 뛰어들었고, 조선족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당한 갈등을 야기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가난한 조선족들이 북한 월경자들을 숨겨준 후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중국정부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선족은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북한 월경자 사이에 퍼져 나가기도 하였다.¹⁵⁾ 반대로 대다수의 젊은 조선족이 남한으로 경제이주를 떠나면서 텅 빈 조선족 마을을 탈북자들이 약탈을 하거나 부녀자와 노약자를 폭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조선족 사이에서 탈북자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Lee, 2004: 45). 연변대학교의 박창익 교수는 일부 탈북자가 범죄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중국동북지역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한다.¹⁶⁾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전히 조선족 사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문화·언어지대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도 관찰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약 70%를 차지하는 북한여성들은 남한으로 경제이주를 떠난 조선족 여성의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

15) 인터뷰에서 만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조선족을 상당히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불법월경자임을 알고 일을 시킨 후 월급을 줄 때쯤이면 공안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었고, 극단적인 사례의 경우 자신들을 인신매매하였다고도 증언한다.

16) http://www.cwomen.net/bbs/board.php?bo_table=history&wr_id=1296; 탈북자의 범죄에 대한 조선족의 분노에 찬 시각은 연변통신 게시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http://yanbianforum.com/board.html?gid=nb&id=7812&include=&lc=1000000&mc=&mode=view&sc=0>.

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계발이 덜 된 농촌지역에서 눈에 띄게 포착된다. 물론 많은 수의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결혼하지 못한 농촌 조선족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북한여성들을 데려와 정착한 사례가 많지만, 동북 3성 조선족 사회의 여성의 빈자리는 더 많은 북한여성들이 월경을 할 수 있게 하는 큰 동기임에 분명하다. 중국의 현지조사에서 만나게 된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적어도 6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결혼하여 살고 있다고 증언한다. 세대수가 50세대 정도인 작은 마을인 이곳¹⁷⁾이미 많은 여성들이 조선족 농부들과 결혼하여 이주하였고, 대부분이 5~10년 넘게 정주하면서 아이도 낳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농촌에 남기를 원하지 않아 도시 혹은 한국으로 떠난 많은 수의 조선족 여성의 자리를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이곳이 자신들의 고향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여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게다가 조선족과의 결혼과 출산 등을 경험하면서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중국 조선족 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이곳이 또 다른 고향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⁸⁾물론 이들 또한 공안 단속의 공포와 법적 신분이 없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지만,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시골 조선족 마을의 경우 유대감이 높고, 대부분의 촌장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리정순, 2009: 30).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10~30만으로 추정되는 중국내의 북한 사람들의 삶이 하루하루 극도의 불안과 함께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난민적 상황이기보다는

17) 이곳은 중국 연변에서 한 시간 거리인 안도(安堵)에서도 다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야 도착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다.

18) <임진강>은 북한여성이 조선족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리명희라는 북한 출신 여성이 조선족 마을의 부녀회장으로 선출된 실화를 소개한다.

적절하게 조선족 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문화·언어지대 내에서 안정감을 구축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낙관하기에는 일상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확장되고 강화된 ‘국경’이 이들의 생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상의 길거리는 공포의 장소가 아닌 자기 인식의 장소가 되어야만 하는데(세네트, 1999), 적어도 중국내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도심 곳곳의 장소와 위치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들어날 수 있는 공포의 장소로 작동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조우(encounter)하게 되는 일상의 접촉지대가 ‘국경’이 작동되는 첨예한 공간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국경’은 동북아의 정치지형에 따라 혹은 이해당사자들의 편의에 따라 다시 약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¹⁹⁾ 즉, 일상에서 강화된 ‘국경’이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적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면 후에 변화하는 동북아 정치지형과 당사국의 협의에 의해 약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²⁰⁾

19) 이금순은 그녀의 논문에서 북한주민의 월경에 대한 처벌이 2000년대 초에는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수의 북한주민이 월경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기에 남과 북의 화해기류에 따라 김정일 정권이 한때 불법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눈에 띄게 완화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후에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다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Lee, 2004).

20) 오랫동안 중국에 체류한 북한여성들 중 조선족이나 한족과 결혼 혹은 출산을 한 경우 이들에게 법적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 자녀들에게도 법적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당장 당면한 문제로, 북한여성들의 불법적 삶의 고단함을 상당히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

5. 이주의 과정: 초국적 민족 공간의 확장

2005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체류기간은 총 41개월로 나타났다(김수암, 2006: 13).²¹⁾ 이는 북한주민이 탈북을 하자마자 남한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 혹은 이동을 반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체류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은 이후 중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제3국으로 제2의 이동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작동하는 강화된 ‘국경’은 중국 측 경계지역 내의 많은 수의 북한주민을 보이지 않는 ‘국경’이 없는 곳을 찾아 이동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한두 번의 북송 경험과 이에 따른 고된 처벌은 북·중 경계지역을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작동되는 ‘국경’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이 문화적·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을 한다. 이 이동은 처음에는 동북 3성의 조선족 거주 지역의 도시(연길, 화룡, 훈춘, 단동 등)에서 점차적으로 주변 지역(청도, 심양, 천진, 위해)으로 옮겨가다가 이후에는 상해나 북경과 같은 대도시로까지 확장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이동이 경계지역의 확장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국과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시작하면서 북·중 경계지역이 북한, 중국, 한국이라는 다소 다른 문화, 경제 단위들이 뒤섞여 또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되었다면(이옥희, 2011: 30~40; 노귀남, 2011: 69~70), 최근에는 이 경계지역이 지정학적 ‘국경’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계지역은 조선족을 매개로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선교사들이 조선족에 기

21) 2003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후 국내 입국까지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4~5년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5~6년이 25.7%, 1년 미만 12.1% 순서이며, 개인당 평균 체류기간은 3년 11개월이었다. 이것은 2002년의 경우 3~4년 47.4%, 1년 미만 20.9%, 1~2년 19.5%의 순서이었으며, 평균 체류기간 3년 2개월과 비교할 경우 점차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서윤환, 2004: 2).

대기 위해 중국으로 이동한 북한주민과 대면하게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계문화(border culture)는 단순히 북·중 경계지역(동북 3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에 따라 중국의 타 지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경’이 조금이라도 약화되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북한주민에게 최소한의 터전은 바로 이 경계문화의 존재 여부이다. 중국이라는 타국의 공간에서 한국인-북한인-조선족으로 분리되어 있던 민족이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중국내의 민족의 공간(ethnic space)을 구성해 가는 것이 바로 변형된 형태의 경계문화인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의 이동은 한국 사람과 조선족이 중국 내에 그 거주 환경을 넓혀가는 것과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이는 중국이라는 장소 안에서도 한국인-북한인-조선족 민족적/문화적 공간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앞에서 소개한 A씨는 경계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후 ‘한국 사람들이 많고 한국 기업들이 많은 곳이 심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심양으로 떠난다. 심양에 도착한 A씨는 한국인과 조선족 밀집지역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북한 사람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 사람이 한국사람 대번에 알아보는 것처럼 제 눈에는 북한애들은 금방 눈에 띄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북한애들이 분명히 모여 있어요. 조선족이랑 같이 있기도 하고(A씨 인터뷰).

그는 심양에 서탑가라는 곳은 한인들과 조선족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허드렛일도 하고 구걸도 하면서 근근이 버티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심양보다 살기 좋으면서도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가 대련이라는 것을 조선족에게서 듣고 대련으로 이동한다. 이후 대련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둣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짐꾼을

하면서 살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함께 일했던 북한 사람들이 잡혀가고, 위해로 가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위해로 친구들과 이동을 한다.

… 도착해서 보니 도통 한국 사람들이 없더라고 많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가 아닌가보다 그러다가 그럼 청도로 가자. 거기는 분명 한국 사람들이 있을 꺼다. 그래서 버스타고 4시간 정도 걸려서 청도로 갔어요(A씨 인터뷰).

A씨의 경우 이동의 경로는 철저하게 한국인과 조선족의 이동을 따라가고 있고, 정보를 얻는 채널도 조선족과 한국인임을 알 수 있다. 위해라는 곳에 도착해서 조선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느꼈던 당황스러움은 A씨의 이동의 경로에서 한국인-조선족이라는 초국적 공간과 경계문화가 미친 영향을 가능해 볼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사례인 H씨²²⁾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심양-청도-심양-천진-위해-연태-상해-곤명-북경-심양-북경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선족과 한인의 도움으로 돈도 모으고 일도 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한다. B씨의 경우에는 안도-연길-화룡 등 연길조선족자치주에서 주로 이동하다가 좀 더 안전한 삶을 찾아 심양-목단강-하얼빈 등에 머물다가 이후에는 북경까지 이동하게 된 사례이다.

북한주민의 중국 내의 이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족 교회 혹은 한인 교회가 중국 내에서 북한주민이 잠시라도 체류할 수 있는 초국적 민족적 공간이자 경계문화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B씨는 중국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까지 오게 된다.

22) A씨와 H씨는 이동의 경로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그 만큼 조선족과 한국 사람을 따라 북한주민이 중국 내에서 비슷한 이동 경로를 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회, 교회 같은데 들어가면 정 돈이 안 될 때는... 차비 떨어질 때면 조선족 교회를 찾는 거예요.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지고 사정 이야기 좀 하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죠. 그럼 뭐 버티고 그냥 안가고 그냥 버티고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받아가지고 백 원, 이백 원 받아가지고 차비해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단강, 하얼빈 갔다가 그 다음 북경까지 간 거예요(B씨 인터뷰).

A씨의 경우 연결에서 2~3차례 전도사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지내기도 하였고, 이후 연태라는 곳에서 한 달 동안 목사 가족과 지내기도 하였다. 성경공부만 하면 배부르게 먹여주기도 하고, 일단 편안하게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종종 얻었다고 한다. H씨의 경우 독일대사관으로 진입해서 한국으로 온 일종의 기획입국 케이스인데, 그 아이디어와 도움은 교회에서 얻었다고 한다.

한인 교회를 주마다 한 번씩 갔거든요. 돈 주니까요. 집사인가, 전도사인가 하는 분이 그 사람도 전도사 겸 영사관에서 일을 했는데요. 한국을 보내달라고 하니깐, 딱히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깐 너희 힘으로 독일 대사관으로 탈출을 해봐라하고 가르쳐주더라고요. 독일 대사관의 약점도 알려주고. 그 조언에 힘을 얻어서 2003년 겨울에 대사관에 갔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뛰어 들어가는데 카메라들이 뒤에서 받쳐주더라고요(H씨 인터뷰).

이렇듯 교회는 단순히 탈북자들이 금전적이나 생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더 나아가 남한행의 정보를 공유하고, 남한행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활동하는 종교인이 북한인권활동가의 역할을 하거나 남한행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고, 이와 같은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기획탈북이나 후에는 동남아시아 이동 경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 내에서 도시를 옮겨 다니며 이동을 하는 이탈주민의 경우 결국 어느 한곳에 정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다. 중국내의 이동의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확장된 접촉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과 미지의 대상이었던 남한이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게 하였고, 한국의 발전된 경제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떠돌이로 사는 것 보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는 결심이 서면 이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행의 정보를 수집한다. 2001년 장길수 가족의 유엔고등판무관(UNHCR) 사무실에 진입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2002년에는 소위 ‘기획입국’이라는 스페인 대사관 진입을 필두로 이외 외국공관과 외국인학교 등이 남한행의 주요 통로였다면, 이후에는 몽골 사막을 넘는 경로와 동남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머니먼 길을 떠나게 된다(좋은벗들, 2006: 55).

초기의 몽골 루트의 경우에는 몽골 정부가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에 인도해주면서 활성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보는 중국내의 초국적 민족공간(transnational ethnic space)을 통해서 확산된다. 중국내 북한 주민의 불법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강화되고 혹은 약화되는 국경은 초국적 민족공간을 걸으며 들어나는 공식적인 관계들과 비밀스러운 면식관계(face-to-face)를 통해서 확장되는 비공식적 관계들이라는 상이한 구조로 양분화한다. 비공식적 관계들로 구성된 촘촘한 네트워크는 북한 주민이 중국내에서 체류하게 하기도 하고, 이들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가능하게도 하는데, 몽골이나 동남아시아의 이동 경로를 통해 이주한 북한 주민의 경우 주로 중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함께 있었거나(성경공부), 같은 일(허드렛일, 구두닦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노동)을 하였던 사람들, 혹은 같은 도시에서 서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함께 이주를 감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D씨의 경우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면서 밀수를 하다가 중국으로 마지막으로 월경을 한 후 한국 교회에서 기거하다가 그곳에서 한국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은 사례이다.

(교회) 사역장을 비워야 할 처지인데 거기 탈북자 선생이 있었는데 자기도 사역장을 비워야 하나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2002년 7월 2일에 연길에서 출발해서 기차타고 몽골하고 중국 국경까지 갔어요. 거기를 18시간을 걸었지요. [...] (앞에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이) 5시간만 걸으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철조망을 두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 거예요.(D씨 인터뷰).

중국 당국을 피해 북한 주민들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는 공간은 단순히 종교적 혹은 인권적 공간이 아닌, 남한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이다. 이곳에서 한국인(혹은 조선족) 종교인이나 인권활동가, 혹은 탈북자들이 남한행에 대한 정보(브로커망, 이동경로 및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함께 이주를 감행한다. 하지만 이들 존재의 불법성에 따른 위험이 이들의 이동의 여정을 더욱더 험난하게 한다. 위의 D씨의 경우에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몽골 사막을 건넌 후에도 남한 대사관에 넘겨질 때까지 계속되는 추방의 두려움을 겪는다.

그날 저녁 5시에 국경경비대를 만났어요. 그때에도 몽골에서 다시 중국으로 보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우리 앞에 사람들은 한국 대사관에서 못 받았다고 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졌어요. 우리는 애가 있고, 한 아이는 죽고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준 것 같아요.(D씨 인터뷰).

2000년대 초반 이후 탈북자들의 몽골 국경 월경이 빈번해지자 이 문제는 몽골과 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로 인해 몽골에 도착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다시 보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또 다른 이동의 경로인 동남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약 7000km의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 가장 많이 선호되는 이동 경로는 중국(곤명)-버마-라오스-태국을 가로지르는 길이고, 또 다른 경로는 중국-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로 이어지는 길이다. 각 국의 정치적 상황과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에 따라 이 두 경로는 번갈아 이용되고 있고, 상당부분 탈북브로커들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이동경로의 경우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과 같은 극한 상황이 덜하고, 탈북브로커들이 상당 수준 안전하게 길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게다가 동북 3성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중국, 버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이 여정에서 이들은 불법월경자로서 매순간 ‘국경’을 경험하게 된다. 아무리 브로커가 이들의 이동을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통하는 한명의 브로커가 이들의 이동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주로 조선족이나 탈북자 브로커들이 안내하다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이들을 인계받아 안내하게 되면서 이들의 경험하는 두려움과 공포는 극에 다다른다.²³⁾

E씨의 경우 중국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올 것 같아 돈을 주고 동남아 경로를 선택하였는데, 중국말은 어느 정도 했지만 동남아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불안했다고 회고한다. 이상한 말로 배를 타라고 손짓하는 브로커를 따라 작은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넌 기억은 그의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볼 수 있게 한다.

내가 지금도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메콩강을 건널 때예요. 와 내 아아들-현재 중학교 2학년)랑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툼툼거리는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는데 난 강이 그렇게 검고, 와 그 안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휘돌아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내 얼마나 무서운지(E씨 인터뷰).

I씨는 10명이 넘는 수의 일행과 함께 탈북브로커의 안내로 라오스 국경을 넘었는데, 그때 당시 하룻밤을 꼬박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

23) 이로 인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도착한 이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게 된다(정병호외, 2006).

하였는데 혹여나 발각될까 걱정하였다고 한다.

날은 어둡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애들은 있고. 거기서 이 쪼만한 게 (같이 출발한 일행 중에 한 여성의 4살짜리 아들) 울고불고 해서 내가 야를 등에 태워서 산을 하나를 넘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I씨 인터뷰).

기나긴 이동을 마치고 무사히 남한 측과 접촉한 이후에도 복잡한 국제정세는 이들의 남한 이주를 지연시킨다.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을 넘어 베트남의 호치민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에 찾아간 A씨와 그의 일행 6명은 외교적 상황이 좋지 않자, 다시 한 번 캄보디아까지 이동을 해야 했다. 대사관에서 소개해준 사람들(남한 측 탈북브로커)의 안내를 따라 하루 꼬박 기차를 타고 호치민까지 도착했다. 그곳에서 베트남 브로커의 안내를 따라 이틀 동안 매일 6~7시간을 걸어 캄보디아 국경을 넘게 되고, 거기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목사를 만나, 북한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약 40일을 보낸 후에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시설에는 약 80여 명 가량 북한이탈주민이 수용되어 있었고, 한번에 10명씩 한 달에 3번 한국으로 보내졌다. 이 시설에 있는 동안에도 북한주민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언제 한국으로 보내질지 모른 채 기다리는 것과 성경공부를 하지 않거나 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남한에 못간다는 식의 엄포를 매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²⁴⁾

거기도 조직이어서 총반장, 조장, 밥하는 사람으로 다 나누어져 있고, 아침 먹고 성경공부, 점심 먹고 성경공부, 그리고 또 밥 먹고 성경공부를 해야 했어요. [...] 아주 나쁜 새끼(조선족 총무)예요. (한국에) 안 보내준다

24) A씨는 북한이탈주민이 이 수용시설의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이 시설의 목사와 조선족 총무는 더 이상 남한정부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정부관계자에게 들었다고 한다.

고 하면서 여자애들 엉덩이 툭툭 치고, 옷 다 벗고 자기 안마 하라고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안 보내주는 줄 알고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A씨 인터뷰).

한동안 정착했던 중국을 떠나 떠나면 길을 이동한 북한주민에게 있어 남한행은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었다. 그만큼 상당한 기간 동안 체류하였던 중국을 벗어나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한 것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이상의 큰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고, 그들에게 남한행이 좌절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남한행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당함과 고통도 감내하려 한다. 남한행이 좌절될까 하는 불안감은 사실상 이들이 남한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지낼 때조차 계속되고, 이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된다. 여기서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의 동남아시아 체류는 이동의 중간기착지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북한주민은 동남아시아 국가 내(內)에서 체류하기보다는 동남아시아에 존재하는 한국-조선족 커뮤니티의 연결선을 따라 이동하고, 그 연결선 안의 영역에서만 체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게다가 장시간 지속되어온 중국 내의 체류도 중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닌 한국인-조선족-북한인으로 구성된 민족적 공간내의 체류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에 들어올 때는 상당한 수준의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적 공동체의 가치와 연관 지어 자신들의 이주의 이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6. 남한으로의 이주 이후 경험되는 ‘경계’

지난한 이동의 과정을 겪고 도착한 한국은 이들에게 법적 신분뿐 아니라 기본적 생활의 터전을 제공해준다. 중국이나 기타 국에서 체류하다

가 남한으로 이주하게 된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초국적 민족공간에서 작동하는 정보망을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과 일자리 상황,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 있다. 즉 어떤 지원과 사회적 안정망이 없었던 중국에서의 삶보다 임대주택과 기초생활수급비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남한에서 더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꽤나 이성적인 판단과 경계문화와 초국적 민족 공간에서 경험한 한국인과의 민족적 동일성과 문화적 유사성은 이들의 이주를 추동하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보와 실제 생활이 어긋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이들은 심한 박탈감과 적응 장애를 겪게 된다. 중국에서 범람하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본 화려한 한국에서의 삶이 자신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파악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임대주택과 기초생활수급비는 높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한민족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자신들이 결코 남한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빠르게 실망감으로 변해간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한국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은 이들에게는 한국의 삶의 현실을 인지하게 하는 첫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좁고, 더럽고, 낡은’ 임대주택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실망하고, 그 순간 자신들의 남한사회의 위치를 어렵곳이 파악하게 된다.²⁵⁾

이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경계’들은 이들을 ‘특정인’ 혹은 ‘이방인’으로 구분해내고, 남한 사회의 성원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해한다. 중국의 초국적 민족 공간에서는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던 생활습관, 언어, 억양 등은 한국 내의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는 레드콤플렉스와 결합하여 이들을 타자화한다(김성경, 2011). 이 타자의 경계는 생 정치적인 방식(bio-politics)으로 일상의 층위인 학교, 직장, 지역커뮤니티, 교회 등에서 이들의 일상생활을 개입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조율한다(Amoore, 2006: 337). 이 때문에 많은 수의 북한 청소년들

25) 사회복지사 J씨, G씨, K씨, L씨 인터뷰 자료; I씨 가족과 G씨 참여관찰 자료.

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하는 3D 업종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만 취업하게 되거나, 지역 커뮤니티나 교회에서는 일방적인 수혜자로서의 위치에 고정되기 일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계’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들을 구분해낸다. 노동의 유연화, 자본의 축적화, 경쟁을 통한 이익의 증대 등으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의 남한 체제 내에서 이들이 자력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Harvey, 2000; 세넷, 2002). 이 구조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경쟁’조차 가능하지 않은 약자로 구분되거나 아니면 최하위 노동자에 위치된다. 세금납부자인 대다수의 남한국민의 일방적인 도움이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low-skilled labour)이며, 남한 사회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자(migrant)’이다. 이동의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된 북한이탈주민들은 세금납부자인 남한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선입견이 견디기 힘들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힘겨운 삶이 적응하기 괴롭고, 낯선 환경과 문화는 무의식적으로 믿었던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 허상을 맞닥뜨리게 한다.

게다가 이동의 과정에서 구축된 다양한 초국적 경험과 관계는 동아시아에 산재되어 있는 초국적 민족공간과 그 관계의 연결을 남한까지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체류할 때 결혼과 출산의 경험을 통해 중국인 남편이나 자녀가 있는 초국적 주체가 되고, 이 때문에 남한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이들은 초국적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한다.²⁶⁾ 하지만 냉전이테올로기가 여전히 작동되

26) 인터뷰 사례 U의 경우 중국에서 조선족과 결혼하여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중국에는 딸아이도 있다. 남한 정부 정책상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10년 이상을 보낼 경우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U씨는 급하게 중국 여권을 찢어 버리고 남한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였다. 하나원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조선족 남편은 이미 한국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는 남한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단순화된 경계는 이와 같은 초국적 경험과 관계의 다양한 층위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들과 연락을 하거나 북한으로 일정한 소득을 송금하는 등 이들의 초국적 관계는 끊임없이 유지되고 확장된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단순히 소득을 송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비용을 브로커들에게 지불하고 북한의 친지를 탈북 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남한사회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연락을 취하거나 돈을 송금하는 것은 음성적이면서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초국적 관계는 다른 이주자와는 다르게 여전히 냉전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맥락화된다. 즉 이동의 과정의 초국적 경험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남한사회 내의 북한 출신이라는 공고한 경계와 냉전이데올로기가 제한하는 이들의 초국적 경험과 관계는 이들이 초국적 주체로서의 면면을 충분히 들어내지 못하게 하고, 이들의 공간이 출신지역과 도착지역의 문화가 뒤섞여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초국적 공간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슈뢰르, 2006: 234~236; Sassen, 1990).

자신이 받게 될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인터뷰 사례 M의 경우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살다가 아이와 함께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남한으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이를 혼자 키우며 남한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힘겹고, 경제적으로도 생각했던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이만 중국의 남편에게 보내고, 자신은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전화를 걸어오는 아이와 중국에 와서 다시 시작하자는 남편 때문에 남한 생활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차라리 다시 중국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7. 나가며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의 경험과 동기를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과 이곳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조선족-북한주민의 동일 문화·언어 커뮤니티와 연관 지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의 동기를 단순히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인으로 제한하거나, 경계지역이라는 문화지리학적 공간과 이곳의 일상의 커뮤니티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연구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의 경로와 중국내에서의 이동 경험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계속되어온 정치요인 혹은 경제요인이라는 다소 이분법적 연구 프레임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었다. 이에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과 경계지역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이동의 배경과 동기에는 북·중 경계지역에 오랫동안 자리한 동일 문화·언어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의 이동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는 북·중 경계지역이 북한주민과 조선족의 친밀한 커뮤니티에서 한국인과 북한인이 조선족을 매개로 함께 만나 서로 경합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초국적 민족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초국적 민족 공간은 또 다른 형태의 경계문화로 지리적인 경계에 머물지 않고 중국내의 자본의 이동에 따라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 확장된 경계문화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후 이들의 남한행까지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초국적 민족공간의 확장한 사례로 북한이탈주민을 재위치시킬 경우 이들이 남한사회에 도착한 이후에 겪게 되는 다양한 경계(들)와 정착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단순한 냉전이데올로기나 인권적 접근을 넘어서 이들이 주체적으로 초국적 민족공간의 경계를 확장해온 것을 주목한다면 이들이 남한사회

의 수많은 경계(들)를 넘어 접촉과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북·중 경계지역과 중국내 이동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일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라는 경직된 사고틀에서 음성화된 이들의 초국적 공간과 경험을 인정하는 자세가 시급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이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들의 북한이나 이동 과정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경험을 ‘적대국 북에서 온 것’ 혹은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된 기억’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롭게 과거의 경험과 정착지의 새로운 환경을 협상하여 그들의 이주 문화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국적 경험의 다층성과 이들의 이동의 과정을 관통하는 문화지리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어떤 종류의 이주자보다도 이주의 동기와 과정에서 초국적 경험들을 축적하였고, 이는 북·중 경계지역부터 동남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기나긴 이동 경로에서 초국적 민족 공간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확장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초국적 경험은 이들이 남한사회의 성원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경계(들)를 넘어 다양한 접촉과 소통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Abstract

Experiencing North Korea-China Borderland and Routes of Mobility:
'Border Crossing' of North Korean border-crossers and the Expanding
of Transnational Ethnic Spaces

Kim Sung Kyung

Since the breakout of North Korean mass migration in the mid-1990s, the motivations and experiences of North Korean border-crossers have been mainly expl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 migration. However, without ignoring the importance of this previous research framework based on economic migr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adoption of a cultural perspective that seeks to understand their mobility. In particular,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borderlan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hich could be characterised as 'transnational ethnic space' and transnational experiences of North Koreans that have long been constructed in the borderland. In highlighting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borderland, it investigates whether North Korean mobility is 'border-crossing' of the national territory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r the 'border-making' of transnational ethnic spaces. In other words, long established cultural and linguistic communities in the borderland sinc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have provided stronger feelings of security and intimacy between the two and supported significant numbers of North Koreans in crossing the territory of China-North Korea during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In this sense,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border-crossers should be conceptualised as 'mobility' within the everyday community rather than 'migration' from one nation to another.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ir long journey within China as well as across Asia to

South Korea needs to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border-making’ of transnational ethnic space. Furthermore, after arriving at South Korea, North Koreans experiences diverse ‘borders’ in a society, but they also attempt to cross those borders by actively engaging with transnational activities.

Keywords: borderland, cultural and linguistic community, transnational ethnic space, ‘border crossing’, ‘border-making’

참고문헌

- 권태환·박광성. 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 27권, 제 2호, 61~89.
- 김문조·조대엽. 1992. 『북한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아세아연구>>, 제 35권, 제 1호, 1~48.
- 김병로·김성철. 1998.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민족통일연구원.
- 김성경. 2011.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아태연구>>, Vol.18, No.3.
- 김수안. 2006.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Online-Series, 06-05, 통일연구원.
- 김정일. 2000. 『김정일 선집』, 14권, 북한.
- 노귀남. 2011. 『새터민의 이방성 이해-소통을 위한 문화담론을 찾아서』, 『생활세계 이방성: 젠더와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회·상호문화철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렐프, 에드워드.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리정순. 2009. 『함경북도 도 집결소』, <<두만강>>, 6호, 임진강출판사.
- 리홍국, 김호남, 장희망. 2010. 『중국조선족문화 및 그 특색에 관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마이애스, B.R. 2011.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 시그마북스.
- 서윤환. 2004. 『재외탈북자의 인권문제와 개선방법- 여성, 어린이를 중심으로』, 『워크숍 자료집: 재외탈북자 및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북한인권정보센터.
- 세넷, 리처드. 1999. 『살과 돌: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문화과학사.
- 세넷, 리처드.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문예출판사.
- 송봉선. 2011.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본다』, 시대정신.
- 슈뢰르. 2002.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박사 논문, 고려대학교.
-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 집문당.
- 이옥희. 2011 『북·중 접경지역·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푸른길.
- 이우영 외. 2008.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한울.
- 정병호, 전우택, 정선경. 2006.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주신. 2011. 『탈북자 문제의 인식 1&2』, 프리마.
- 좋은벗들. 1998. 『탈북난민 북한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http://www.goodfriends.or.kr/n_korea/n_korea6.html?sm=v&p_no=13&b_no=3306&page=3(검색일:2012.4.13.).

- 좋은벗들. 2006.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정토출판.
- 통일교육원. 2012. 『2012 북한의 이해』, 통일교육원.
- 홍진표 외. 2004. 『북한의 진실』, 시대정신.
- Akaha, T. and Vassilieva, A. 2009. *Crossing national borders: Human migration issues in Northeast Asia*,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Aldrich, R. 2011. "An Examination of China's Treatment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North Korean Review*, Vol.7, No.1, pp.36-48
- Amoore. 2006. "Biometric Borders: Governing Mobilities in the War on Terror", *Political Geography*, No.25, pp.336-51
- Balibar, E.,1998. "The Borders of Europe" trans.J.Swenson, in P.Cheah and B.Robbins(eds). *Cosmopolitic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the Nation*, London and Minneapolis: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216-33
- Bricmont, Jean. 2006. *Humanitarian Imperialism: Using Human Rights to Sell Wa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Choi, Eunyong C. 2011. "Everyday Practices of Bordering and the Threatened Bodies of Undocumented North Korean Border-Crossers", in Wastl-Walter, D.,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Border Studies*, Surry: Ashgate Publisher
- Chomsky, N. 2008. "Humanitarian Imperialism: The New Doctrine of Imperial Right", *Monthly Review* (www.chomsky.info/articles/200809--.htm)
- Dominian, L. 1915. "Linguistic Areas in Europe: Their Boundaries and Political Significance", *Bulletin of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Vol.47, No.6, pp.401-439
- Gomà, Daniel. 2006. "The Chinese-Korean Border Issue: An Analysis of a Contested Frontier", *Asian Survey*, Vol.46, No. 6, pp.867-880
-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Henrikson, A. K. 2011 "Border Regions as Neighbourhoods" in Wastl-Walter, D.,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Border Studies*, Surry: Ashgate Publisher
- Lee Keum-soon. 2004. "Cross-border Movement of North Korean Citizens", *East Asian Review*, Vol.16, No.1, pp. 37-54
- Reichert, D.1992. "On boundaries", *Society and Space*, Vol. 10, pp. 87-98
- Sassen,S. 1990. *Global City*, Lond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A. 2000. *Myths and Memories of the 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H. 2009. "North Koreans in China: Sorting fact from fiction" in Akaha, T. and Vassilieva, A. *Crossing national borders: Human migration issues in Northeast Asia*,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Vaughan-Williams, N. 2009. *Border Politics: The Limits of Sovereign Power*, Ediburgh: Ediburgh University Press

Yoon, In-jin. 2001. "North Korean Diaspora: North Korean Defectors Abroad and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Vol.30, No.1, pp.1-26